

## 감사의 글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언제나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논문을 완성하고나니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됩니다. 논문을 쓴 사람이면 누구나 하게 되는 것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학원에 몸담고 있는 동안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질타로서 연구자의 마음가짐, 몸가짐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신 송 규동 교수님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손 장열 교수님, 논문 완성시 격려를 해 주셨던 전 진용 교수님과 안 병욱 교수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연구실 생활 중 처음부터 한솔밥을 먹으면서 같이 졸업을 하는 많은 도움을 주었던 동철과 선배를 따라 준 부지런한 종주, 연구실을 먼저 나선 후에도 내가 찾을 때 마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며 동기애를 보여준 기형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연구실을 지킬 정호, 영주에게도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마주칠 때 마다 미소를 머금으며 선배로서의 따뜻한 말 한 마디를 잊지 않았던 이름이 같아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승민 누나, 연구실 선배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흥동 형, 낙천적인 모습이 보기 좋은 인호 형한테도 고마움의 표시를 전합니다. 또한 선호, 영태, 미정, 회원, 종태, 황기, 경석, 정현, 한진, 희윤 등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던간에 언제나 마음속으로 응원과 우정을 보여주는 평생 벗들이 있습니다. 이젠 어언 10년이 되는 학부와 연구실 생활을 동고동락해왔고 믿음과 신뢰를 쌓아왔던 민성, 끊이지 않는 관심을 보여주는 대학 벗 우열, 형준, 자신의 자리에서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중학 벗 승한, 지칠 때 마다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자리를 발벗고 마련해 주었던 고교 벗 동겸, 성훈, 창훈, 형석 이 모든 벗들이 보여주었던 우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마음 속 깊은 우정의 답을 전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지금까지 제 옆에서 절 지켜본 분들이 있습니다.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애정으로 자식처럼 절 대해주셨고 아껴주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열 분의 숙부, 숙모 내외분들과 고모, 고모부 내외분, 외숙부, 외숙모 내외분 그 분들의 애정에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을 제 가슴 속 깊이 느끼게 해주시며 보잘 것 없는 저한테 한결같이 하나의 사랑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한없이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연구실 생활에 작은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1999년 6월

한 승 민